

한국조경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호

Landscape Review



관경대(親耕臺, 便殿)

향나무

동쪽 작은구릉
식목 전 수목 3-4그루

적전

송림(松林)

순종황제
어친경(御親耕)

Vol.16 조경정보

Contents

역사 · 문화

- 02 조경인의 역사적 사유와 과제
- 05 조경에서의 역사와 전통
- 08 역사유적의 설계적 가치와 활용방안
- 12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
- 16 홋카이도에서 만난 산업유산의 풍경과 그 지향
- 20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 22 역사 · 문화적 기억과 새로운

조경인의 역사적 사유와 과제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hbkim@uos.ac.kr

요즘 인기 텔레비전드라마와 영화에서는 퓨전 사극과 다큐멘터리가 대세이다. 실제 도시환경에서도 기존의 서울 인사동, 북촌에 이어 삼청동과 서촌 등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서울의 동네마다 젊은 연인들이 물러나고 있다. 이들에게 테마가 있는 역사환경은 일종의 로망이나 판타지로 인식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빠르게 변화해왔으며 무성격현 현대의 도시환경에 대한 심리적 반작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화려한 카페 위주의 거리로 변하는 등 기존 지역의 역사적 고유성을 상업화로 훼손시킨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근 10년 전부터 서울시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가치변화를 포착하고 청계천을 복원하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등 주변 구도심 재생의 기폭제를 마련하여 시민으로부터 획기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종로 피맛골을 포함하는 서민적 역사공간들의 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역사환경들을 급격히 사라지게 하는 아이러니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에는 우리 조경인들이 도시설계분야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역사문화환경의 대상과 인식 방법에서의 명과 암을 함께 생각해 보고, 조경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원적인 인식 방향을 재점검해보려 한다.

도시의 역사문화환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도시경관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며 가시성이 높은 기념비적 공간과 시민의 일상적 삶을 형성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적 공간이 그것이다. 이들은 거시적 공간과 미시적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으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시민들이 역사환경에 끌리는 데는 시대가 변함에도 변치 않거나, 변화의 속도가 느린 어떤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지역환경의 정체성, 즉 지역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들 역사환경의 대상자원들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앞의 변치 않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공간유산인 궁궐이나 성곽, 대로나 광장 등 기념비적 공간들이라면, 후자인 느리게 변하는 부분들은 생활현장의 유산인 시장이나 마을의 골목길, 골터 등 준공공적 장소들이다. 대

체로 행정가의 입장이 전자에 좀 더 관심을 보여 왔다면, 일반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근감은 후자 쪽에 더 끌려왔다고 보인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시민사회의 관심은 후자 쪽으로 더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보존적 도시학자 중에서는 근래, 건축물 중심의 문화재 외에 문화재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오래된 유명 식당이나 서점 등 시민의 생활 속 명소들을 '생활문화재'로 지정하자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은 바도 있다. 이는 역사학에서의 관심이 왕조 중심의 거시사에서 개인이나 집단 중심의 미시사 이동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의 일단으로 보인다. 시간의 크기만이 역사의 척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은 모두 역사라는 이러한 관점은 근세사나 현재의 시점까지도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역사와 역사환경에 대한 인식범위를 크게 열어 놓았다. 자연환경의 가치를 주로 다루는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함께 역사환경의 대상범위를 더욱 넓게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땅과 물길, 수림 등 자연경관의 역사는 물론 길과 언덕, 계단 및 조망 등 모든 외부환경자원의 미시사적 가치, 나아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용도 등 비물리적인 역사자원들을 조경계획, 경관계획에서 역사적 자원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조경인들은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던 경(景)과 곡(曲), 원림(園林) 등의 역사적 자연문화경관들을 제도적인 '명승'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현대적 조경설계를 살펴보면 '행복도시 중앙녹지' 당선작에서는 치수용 제방을 없애 하천 원경관의 복원을 제안하였고, '용산국가공원' 당선작에서 보듯이 훼손된 지형경관을 복원하여 전통적인 산과 골의 경관을 재창출해 낸 바 있다. 자생적 달동네에서는 골목 공간의 연장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공동체적 삶의 공간을 발명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장소 본래의 역사적 무게보다 장식성에 치우친 경우가 적지 않아 조경설계에 대한 세간 이미지를 왜곡시킨 바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논의를 확장시키자면 결국 우리 도시와 국토의 모든 삶의 공간들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공간들이며 따라서 모

든 공간의 해석과 계획과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역사적 사유를 피해 갈 수 없으며 역사적 사유의 깊이와 넓이에 의해서 창조적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조경과 경관 만들기에 있어서 역사적 사유의 방법을 크게 세 갈래로 보고 각각의 방법과 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그간 조경을 포함하는 환경설계에서 역사성의 표현 양식은 크게 '이상주의적 접근'과 '사실주의적 접근'의 두 가지로 나누어 나타났다고 보인다. 이들은 고전주의와 토속주의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상적 형태질서를 중시한 것과 현실적 생활의 진솔한 표현을 중시한 접근으로 나누기도 한다. 실제 관 주도의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앞엣 것이 주도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뒤엣것에도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이상주의적 접근은 앞서 말한 기념비적 경관으로 그 구조적 원형(原型)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주로 지배 계층의 고급문화를 모형으로 한다. 이들은 관념적 구조를 중시하며, 잃어버린 꿈,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콘테스트로 한다. 서양에서는 비례와 균형 등 고전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형식미학 및 형태에 내포된 상징성을 부수적 효과로 추구한다. 동양에서는 이와 대비하여 음양과 풍수, 기운생동이나 천원지방 등 극히 철학적 세계관이 표현된 도상(圖像)이나 곡과 경, 몽유도원 등 보편적 이상향의 원형을 상황에 맞추어 변형, 적용해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예로는 광화문 광장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미학이라는데 있으며, 실제 환경설계에서 강한 가시성과 상징성 때문에 자주 도입되나 형식적으로 경직된 적용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사실주의적 접근은 앞서 말한 장소적 경관으로 일상적 삶이 누적된 모습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 접근에서 두드러진 미적 가치는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진정성과 경관, 생활, 의미가 어우러진 총체성에 있다. 서구에서는 중세적, 자연발생적, 유기적 양식과 관련하여 설명되며, 무의식적 미, 반미적 미(反美的 美)로도 불리며 결과적으로 지역적 특수성, 개별성,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형식미학에서 추구하는 감각적 쾌감과는 달리 고통, 슬픔, 누추함 등을 미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면에서 미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역사, 현재 시점도 역사의 일부로 본다는 면에서 역사환경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도 인정받는다. 최근의 근대산업유산의 공원으로의 재생도 이 접근의 일부로 본다. 이런 면에서 근대의 병영시설을 포함하여 부지를 재활용해야 하는 최근의 용산공원 프로젝트도 이러한 접근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기존환경의 재생적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에서 이러한 사실주의적 접근은 특히 구도심이나 주거지 재생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마을만들기나 쌈지공원, 골목공원 등도 이러한 접근의 일례로 볼 수 있다. 지역의 미시적 역사자원의 존중과 함께 기존 주민의 생활과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속성상 이러한 접근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앞으로 조경인들도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마을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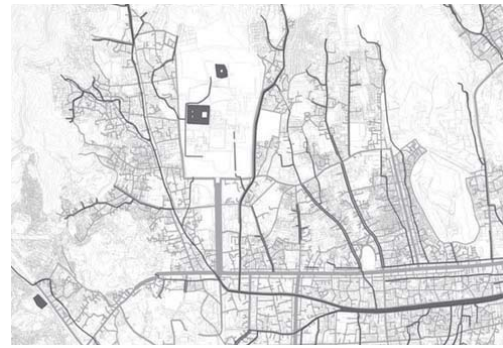
역사환경에 대한 세 번째의 접근방식은 소위 '창조적 역사주의'이다. 대역사가 카(E. H. Carr)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언명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켰는데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시대정신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러한 역사관은 기존의 역사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현대적으로 창조된 환경을 이에 덧붙이고 대조시킴으로써 더욱 생생한 역사적



광화문 광장 조감도



광화문 광장 _한양의 경관원형을 강조하는 기념비적 경관



19C 한양물길



인사동길 _물길에서 연유된 역사적 생활가로경관



신유도공원·산업유산에 대조적 용도를 결합시킨 창조적 역사경관

인 지적 자극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서양 건축문화의 시원적 형태를 통해서 역사적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유리의 피라미드와 루브르 궁전의 관계는 상호 음양의 씨앗을 내포한 음양구조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호 대조적 형태를 결합한 이러한 기법은 현대미술의 콜라주나 테페이즈망(이질적 요소 간의 병치) 기법과도 통한다고 보인다.

조경에서 이 정도의 과감한 시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과 연결해 불만찬 사례는 기존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이에 극히 대조적인 공원의 용도와 형태를 결합한 개스워크 공원(Gas Works Park; Richard Haag, 2007)이나 하이라인 공원, 한국의 선유도공원 및 하늘공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시각에서는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경관 인프라로 재생하였다는 측면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의 예로 들기도 하나, 근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최근의 역사유산에 극히 대조적인 용도와 시각경관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정서적 자극을 유발하고 있다는 면에서 창조적 역사주의의 조경적 유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 공원은 그간의 관행인 장식적 표현을 자제하고 기존 대지 형태와 구조물의 경관이 갖는 역사성을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들로부터도 기존 공원의 통념을 넘어서는 낯선 미적 체험을 통해서 센세이셔널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여러 접근방법과 연관 지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용산국가공원' 국제공모의 결과를 새로운 눈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글의 마무리를 대신할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 백 년 이상 외세의 지배와 냉전의 상징이었던 용산기지는 한국 근세사의 어두운 일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곳을 공원화하는 계획적 비전은 이와는 상반되게 '미래 한국의 희망을 세계에 표현' 하는 한국대표공원의 창조이다. 본 원고의 주제인 역사적 사유의 대상으로 대상지가 구현해 내야 할 성격을 생각할 때, '현황(역사)



용산공원 당선작(Healing, West8 +이로제)부분 Heritage Garden Park



선유도공원: 산업유산에 대조적 용도를 결합시킨 창조적 역사경관

과 '비전(미래)' 이라는 상반된 두 명제는 작품 속에서 최소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공모 전에 지명초청된 작품들을 일괄해 볼 때, 공모전의 경쟁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역사' 보다는 '미래' 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 대부분의 작품이 지역성을 표현하려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더욱 중시하였고 그 접근방식도 사실주의적 시각보다는 이상주의적 시각 위주로 산과 골, 마당, 전통정원 등 한국적 이상향의 원형들을 외삽하려는 시각이 우월하였다는데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된다.

특히, 이 장소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인 근대-현대사의 '상처' 들에 대한 미학적 사유가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보인다. 그중에서 '치유(healing)' 의 슬로건을 들고 나온 당선작은 역사의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문화의 치유' 를 3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연의 치유는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이라는 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역사의 치유에서 다루어진 병영시설의 보존, 증축, 문화적 재사유 등은 아직도 소극적인 심미적 대응에 그친 감이 있다.

필자는 몇 년 전(2009)에 발표한 용산공원 관련 에세이에서 '상처도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현재 용산기지에 산재한 병영 관련 시설들은 가장 대표적인 상처의 자원들로서 현 대상지의 장소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들이다. 이들을 과장하지도 미화하지도 않



용산공원 당선작(Healing, West8 +이로제) 자연경관의 창조적 복원과 근대역사경관 활용이 혼재된 접근

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설계가 용산의 가장 진정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무언중에 이용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는 그 자체로 이름답지도 추한 것도 아니며, 다만 우리의 현재 삶을 비추어 성찰에 이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것으로서, 현대의 공원과 도시경관이 지향하는 심미적 가치는 그간의 관습적인 형식미학과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서 역사적 진정성과 그 비장함을 포함하는 차원으로까지 확장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경에서의 역사와 전통 : 맹목적 상찬과 날조를 넘어 창조의 원천으로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jssung@snu.ac.kr

조경분야에서 꽤 오래 역사를 화두로 삼아 온 필자에게도 정작 그것을 주제로 한 글을 쓰기란 만만치 않거니와 하다. 그것은 아무래도 역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무게에서부터 오는 중압감 탓일 것이다. 한국에서 역사나 전통이 무거운 주제인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역사, 특히 근대 이후 질곡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짧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것을 많이 잃어버린 한국인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작용한 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랜 일제 식민지와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서구화로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그 강박감은 대부분의 경우 남의 것의 추종으로 인한 전통 흠대 혹은 전통의 맹목적 상찬이라는 상반된 양상으로 노정되어 왔다. 전자가 전통을 현대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벗어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이거나 고리타분한 유물로 간주한다면, 후자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라는 선전 문구처럼 전통이라면 무조건 떠받들려고 하는 맹목적 과잉으로 드러난다. 당연히 둘 다 정체성의 결여 혹은 과잉 상찬이라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여기서는 역사 문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논의 가능한 주제들을 먼저 열거해 보고, 그중에서 특히 조경실무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전통에 주목하여 그것이 조경 현장에서 노정시키고 있는 단면을 사례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통의 재창조_ 국립중앙박물관 설계구도와 거울못 (구글지도 위 필자작업)

(鑑), 통감(通鑑), 기(記), 서(書) 등의 용어로 쓰였다. 역사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개념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셈이다. 그 정의가 어떠한 간에 역사를 지나간 사실과 자취 모두라고 한다면, 전통은 그중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전통이라고 할 때에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선호 판단 내지는 취사선택의 의지가 배태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전통을 "과거의 특정 역사를 의도적으로 불러낸 결과(진경환, 2010)" 라고 하는 까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요는 전통이란 과거의 것 중에서 특정 공동체(대개 민족이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집단적인 상상체계로 구축된 문화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문화재란 전통 유산 중에서 국가가 특정 목적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문화적 재산을 말한다. 대체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문화재는 제도에 의해 적극적인 보존 및 복구, 홍보와 교육 등의 대상이 된다. 산업유산이란 문화재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근래에 와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대상이다. 용도는 다하였으나 지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을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 도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남겨진 것을 새롭게 성찰하려는 사고의 전환의 산물인면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거대사 중심에서 미시사로 이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나간 삶 속 스러져가는 것들 중에서 삶의 진정성이 담긴 생활환경을 문화유산으로 재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성이라는 용어는 지리적 차원에 입각한 개념으로서, 향토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착적 뉘앙스가 탈색된 의미로 간주된다. 지역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고유성과 차별성이다. (이에 반해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중시되는 것은 보편성이다. 전 지구적 혹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성은 그안의 지리적, 시간적 범주 내에서 보편성으로 다시 치환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시대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결국 당해 지역과 시기에서 보편적인 속성들이란 것이다.

스쳐 지나듯 짧게 다룬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이다. 시간은 자연계속에서 누적되어 생태로 드러나며, 인간사회에서는 역사 혹은 문화로 구축된다. 이들 역사, 전통, 문화재, 산업유산, 지역성 등은 시간이 각기 다른 대상 혹은 공간과 만나 생성된 것들로서, 모두 조경의 중요한 탐구 대상이다. 조경 이론 및 실무에서 공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제들이다. 특히 조경설계에서 이들은 목표를 이루는 가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계안을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전통은 경제, 기능, 미, 그리고 생태와 더불어 설계안을 결정짓는 강력한 기준이자 권능으로 작용한다.

한국조경에서 전통 - 몇몇 단면들

동시대 한국 조경계에서 전통은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 면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지면 사정상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사례 위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사례는 주로 필자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당연히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강요된 권능 내지 기준

얼마 전 발표된 용산공원은 한국 공원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하나 공원으로 개장되기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한때 그중에서도 남측 중앙부는 이미 반환되어 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기존 전통(장소성)의 해석 및 재창조. 선유도공원의 정자와 도화원. 당초 설계 의도는 남겨진 산업시설의 흔적과는 어울리지 않은 한식 정자를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도화원을 되살려 냄으로써 한강과 그 너머로 마주 보이는 망원정, 그리고 멀리 북한산을 조망하며 교감하는 옛 정취를 되살려내려고 하였다. ©성중상. 2012. 4월

1996년 국제공모로 당선된 안은 폭 400여 미터에 이르는 건축물과 둘레 330 미터가 넘는 타원형의 거울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에서 진행되어 내려온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방향과 한강 및 전면도로(서빙고로)를 공간배치의 두 축으로 삼고, 어긋나는 그 두 축을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로 서 거울못은 공간 구조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요소로 설계되었다. 한데 타원형인 거울못을 두고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펼쳐졌다. 전통유물을 수장할 박물관 앞에 수공간이 위치한다는 점과 타원형이 방지원도(方池圓島)라는 한국전통 수공간 양식에 어긋난다는 논리에서였다. 건물 앞에 연못 배치 문제는 건축 구조 및 시공 기술로 극복 가능하다는 설명과 사찰, 마을 등 전통공간에서 발견되는 다른 사례로 해결되었지만 형태 문제는 안 전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전국 각지의 사찰과 전통 공간 등에서 방지가 아닌, 타원이나 원형의 연못이 여럿 있음을 입증하고서야 겨우 마무리되었다. 이미 건축물이 용도나 규모, 형태, 재료 등에서 전통의 조형양식이 아닌 마당에 굳이 연못을 전통양식에 맞추려고 하는 논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통이라는 권능은 당시 설계자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전달되었다.

맹목적 상찬의대상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산업유산공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선유도 공원은 옛 정수장의 흔적과 기억을 살린 독특한 공간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비록 우리 도시의 일상 풍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콘크리트 구조체와 각종 설비를 살려 공원이라는 바깥 용도 속에 배치시킨으로써 일상 속

에 있고 있던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정수장)의 존재 의미에 대한 각성과 함께 산업미학이 주는 감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남겨진 산업유산과 자연물 - 식물, 돌, 물, 햇빛과 그림자 등등 - 간의 강한 대비와 공생의 미학이 공원 풍경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원 중앙 북측 한강 변에는 뜻밖에도 한식 정자가 자리 잡고 있다. 전통 기와와 목재 마루로 된 정자는 누가 봐도 공원 전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은 어색한 동거자로 보인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이니 한국전통요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전통 매카시즘' 요구에 의해, 설계자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워



일상 생활공간 속 전통의 재창조. 예천 금당실 마을 돌담. 마을에 원래부터 있어 온 토석담과는 사뭇 정취가 다르다. ©성중상. 2012. 6월

진 것이다. 그저 '무조건 좋은 전통은 어디나 들어가도 좋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디자이적 인식의 현상이다. 장소가 지닌 역사를 기억하거나 표상하는 방편으로 단편화된 전통 요소를 동원하는 사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초고층의 첨단 빌딩 숲 속에 한식 정자를 자랑스럽게 배치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본래 구조나 맥락은 도외시한 채 단순한 시각적 오브제로만 봉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전통 정자들은, 전통에 관련한 맹목적 상찬을 서슴지 않는 우리 시대 우울한 단면이다.

물개성 · 획일화된 양식

최근 들어 우리 것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전통 관련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 및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로 경북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시행된 사업이다. 오랜 유교 문물을 보존 정비하고 주변 자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각종 전시관과 체험장, 공연장, 주차장 등의 관광시설과 함께 마을의 기존 농가와 담장, 그리고 마을길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마을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의 훼손과 경관 획일화는 그 과정에 드러난 문제의 일각이다. 대체로 지역의 토속적 양식 및 재료에 대한 이해 부족에 연유한 그 같은 오류는 지역의 고유특성을 지운 채 경관을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 경북 예천의 금당실 마을은 미로처럼 이어진 돌담길로 유명하다. 한데 최근 새로 정비된 담은 어떤 일인지 기존 담장과 다르다. 돌과 흙을 함께 쌓은 토석담들 사이로 돌로만 쌓은 돌담이 여기저기 축조된 것이다. 황토를 벗겨와 함께 물에 버무려서 돌



전통유적의 복원. 부용동 곡수당 상지 입수장치로 잘못 복원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학과 석제비구. ©성중상. 2008. 8월과 2007. 12월 촬영. 물을 인근 계류에서 끌어오면서 가산을 조성하고 그 밑에 은통으로 물을 대던 전통적 수경처리기법은 온데간데없고, 느닷없는 원형 물학과 석축단, 그리고 석제비구를 만들었다.

사이를 채워가며 쌓은 토석담 축조 방식이 여의치 않은 탓에 돌로만 모양을 내어 쌓은 것이다. 그나마 돌도 현지산이 아니어서 어쩐지 어색하다. 다른 지역의 돌로 모양을 내어 쌓은 돌담은 인근 화룡포 마을에서도 대거 눈에 띈다. 비슷 비슷한 돌담으로 전통마을 풍경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지 여건과 특수성이 아닌, 경제적 효율과 작업 용이성을 따르다 보니 전통사업이 마을 고유 특성을 지우면서 물개성 · 획일화된 경관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왜곡 내지 날조

보길도 부용동은 조선조 윤선도가 자신이 예술적 취향을 만끽하며 즐긴 한국의 대표적인 원림이다.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한 지금의 모습은 어처구니없게도 원형을 많이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곡수당의 상지 입수시설은 2008년 이후 이상하기 짝이 없는 원형 수조와 원통형 석구로 복원(?)되어 있다. 보길도 정원에 관한 거의 유일한 문헌인 고산 후손 윤위가 쓴 <보길도지>를 읽어 보면 현재 모습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록에는 가산을 두고 그 속으로 은통(隱筒)을 숨겨 상지에 물을 대었고, 물이 차면 옆 작은 동산으로 물을 돌렸다고 되어 있다. 가산과 은통, 그리고 동산(短阜)이라는 우리 고유의 정원 장치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적불명의 원형수조와 돌 대포 모양의 비

구 등으로 어이없게 대체되어 버린 것이다. 단풍, 동백(山茶), 소나무 등이 있던 작은 동산도 아예 흔적조차 알 길이 없게 무시되어 있다. 엄연히 기록된 사실마저도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판이니,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거 커다란 통들로 곡수당 돌다리라고 없어놓은 무작스러운 차라리 예교로 보일 지경이다. 곡수당 뿐만 아니라 근래에 복원된 부용동 원림 모습은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몇 건물만 덜렁 복원되어 있는 낙서재 지역은 삭막하기만 할 뿐, 고산 윤선도가 즐겼던 비구와 낙수, 연못, 그리고 귀암 바위 등은 아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니 현장을 방문하는 조경학도나 일반인이 무슨 감흥을 느낄 것인가? 차라리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지워버린 것이다. 간단히 소개한 이들 전통 관련 사례는 한국 조경 현장의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전통을 둘러싼 이런 부정적인 단면들은 무지와 무관심에 가까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터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전통들은 왜곡되거나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인식도 낮고 사료 조사와 연구도 빈약한 현시점에서 선부른 복원이나 정비보다는 차라리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소극적인 방편이 더 필요할 듯하다.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하버마스는 전통이

란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갈파했고, 흠스봄은 의도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작업의 산물이라고도 했다)이라고 보면 전통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외와 배척으로 일관했던 모더니즘과는 달리 새롭게 부활한 전통이 가진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옛것이라도 낡고 구태의연한 것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에 사라지는 것과 달리, 진정한 전통은 문화로서의 내구성과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문화 창달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새로움의 추구는 옛것을 제대로 알고 나서 시작되어야 하며, 낡은 것의 혁파는 그 속에 깃든 시간과 의미에 대한 경의심으로부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지속적인 연속체(이종상, 1988)로서 전통은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원천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인용문헌

-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2001
- 이종상, 『술바람 막내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8
- 진경환, "전통과 담론",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사, 2010
- 최석영 역(에릭 흠스봄 지음),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6

역사유적의 설계적 가치와 활용방안

김영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ymkim1683@much.ac.kr

지속가능한 개발과 역사유적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역사유적이라는 용어는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역사유적은 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된 역사·문화활동의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국토개발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호모순적 개념으로 대립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국토개발은 역사유적의 보존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개발사업은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유적의 보존은 다른 어떤 가치에 못지않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흔히 '민족문화의 자산'이라는 본질적인 가치 외에도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에 역사유적이 갖는 친근감과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며, 그것이 형성된 시대와 현재를 의미 있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다만 국토개발에서의 문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도시성(Urbanity) 및 세대간, 계층간, 지리공간상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나 도시민이 공유하면서 지역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역사·문화



노출정비(스페인 알카사바 성채 병영시설 건물하부 노출)



노출정비(터키 톱카프 궁전 도로유구 노출전시)

적 지속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4가지 측면(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역사·문화적 차원)이 모두 상호 연계되고 견지되면서 국토개발이 수행될 때, 지속가

능한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의 장소적 정체성과 다양성, 전통성, 역사성을 반영하는 유·무형의 역사유적들은 21세기 환경친화적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개발사업과 역사유적의 관계

역사유적은 문화재의 유형으로 보면 유물, 유구, 유적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토기·석기·철기 등의 유적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발굴을 통하여 드러나는 동산문화재로서 대부분은 유형문화재의 범주에 해당한다. 유구는 집터·고분·건물터 등의 옛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하나를 일컫는다. 유구와 유적을 포함하는 복합체는 총칭하여 유적이라 한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유적은 현존하거나 발굴이 완료되어 보존되고 있는 것과 개발사업을 통하여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매장유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환경설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존될 가치가 높은 지상의 유형의 건조물보다는 문화재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발굴되는 매장문화재의 활용문제가 더욱 직접적일 수 있다. 기존의 문화재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통하여 이미 정비되었거나 정비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롭게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그 문화재적 가치의 척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



노출정비(익산 미륵사지)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유형

구분	내용
현상보존	개발지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수립 이전에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하여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현상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분포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존지구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전보존	기록보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상보존이 어려울 때에 발굴조사를 원료하고 기록으로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원래 유적의 모습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유형문화재, 고건축,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은 원래 있던 자리와 비슷한 지형을 찾아 주변 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예: 풍납토성 주거지의 서울시립박물관 이전)
기록보존	개발사업지구 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을 철저히 기록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문화재는 더 이상 현장에 보존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인멸하게 되므로 철저한 발굴조사와 발굴결과에 대한 기록이 뒤따라야 한다.

으면 소멸, 방치되기 쉽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공간의 장소성과 시간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설계적 요소로 활용될 잠재적 가치가 무궁하다. 개별적인 유구와 유적은 도시공간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유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공원이 가지는 공공성과 유적의 공공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유적으로서의 매장문화재는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의해 발견된다. 매장문화재단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매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발굴은 옛 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목적에 따라 학술발굴과 구제발굴로 조사단계에 따라서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전면발굴)로 분류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정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지표조사 대상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 각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는데 개발대상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단복원(일본 나니와 노미야 유적 기단 복원 후 초석위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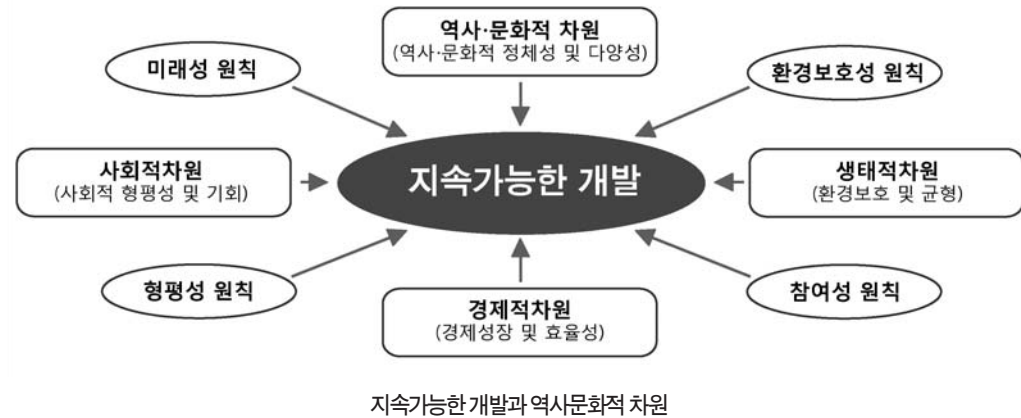
일부복원(일본 나니와 노미야 유적 회랑지의기둥위치 모식)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4항). 이때 매장문화재의 보존은 발굴 전 단계의 현상보존과 발굴완료 후의 현상보존 및 이전보존 그리고 기록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유적의 설계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화되어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이의 결과에 따라 시



지속가능한 개발과 역사문화적 차원



보호시설 설치(경희궁지 시전유구 보호시설)



보호시설 설치
(독일 뉘른베르크 유적 유적지 전체를 덮는
보호시설 설치 후 박물관 활용)



보호시설 설치
(일본 무사시 국분나사 유적 금당지 기반
토층 전시 보호시설)



보호시설 설치
(중국 지엔강공정 유적 도서관 일부구역을
유구 전시공간으로 활용)



안산신길지구 역사유적공원



안산신길지구 역사유적공원



이천갈산지구 역사유적공원

행되는 시·발굴 조사는 개발자(공공, 민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로 인식되고 있다. 불가피한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개발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개발시 발 견되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과 설 계를 변경하기도 하고 심지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유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계적 가치를 가진다.

- 과거의 역사 / yesterday's history

유적은 과거 장소의 기록이며, 조상의 삶에 대한 흔적이다. 따라서 유적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의 근원이다. 근원이 없는 존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유적은 우리 삶의 근원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현재의 선물 / today's present

현재 도시의 공공장소는 상업공간의 확대로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일상의 여가문화는 상업공간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일률적인 도시의 생활에서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의 대안은 유적일 것이다. 유적은 특성상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공간의 장소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잠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장소의 특성과 유적의 가치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않고 일반적인 환경설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소멸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

- 미래의 가치 / tomorrow's value

유적은 그것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현재의 소중한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일 것이다. 이 선물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증거를 넘어서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유적은 미래의 가치이며 이 가치의 한계는 우리의 몫이다.

기존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복토 보존 후 안내판이나 경계책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방법은 역사유적의 현상을 덮어 버

림으로써 그 본질적 가치를 소멸시키고 더불어 개발사업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문화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여 왔다. 유적이거나 유구는 고유한 특성이나 발굴당시 훼손정도, 부채의 종류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는 전체복원에서부터 소극적으로는 복토보존까지 그 정비 방법이 정해지며, 정비 후 전달목적에 따라 정비방법이 달리 적용된다. 현재까지 일반화된 정비방법에는 유구 노출정비, 보호시설 설치, 복토정비, 수복, 복원(기단복원, 일부복원, 전체복원) 등이 있지만 환경설계적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란된 유적의 원위치 회복 및 성토 보존

현재 유적보존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교란되어 있어 있던 유구 즉, 기단이나 초석 등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거나 흩어져 있는 부채들을 재조립하는 방법이다. 이때 지형의 복원이 수반되며 건물지 기반의 경우 주로 성토 후 잔디식재, 마사토 포장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존정비방법은

정비방법	내 용	
노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의 발굴조사 후 그 현황을 그대로 노출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추후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 및 보강 작업이 필요한 정비방법 수리의 경우 건축부채의 재조립 등이 해당되며, 보강은 현대적 재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짐 역사유적이 가지는 역사적 환경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면에서 장점이지만 역사적 정보전달 차원에서는 미약하므로 안내판이나 전시관 및 박물관을 두어 정보를 제공해야 함 	
복토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구를 노출시키지 않고 흙 등으로 덮어 유구를 보호하는 방법이며 목조건물이 많은 동아시아 지역의 건물유적지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 복토 후 유구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지면을 높이거나 구별되도록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정비함 일부 유구를 노출시키거나 복제품을 놓아두는 경우도 있음 	
복원	기단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소극적인 복원으로서 주로 중국과 일본 등의 목조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명확한 형태를 통해 복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발굴조사 및 당시 건축적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복원함 정비 후 건물의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건물의 배치, 구성, 규모 등을 인지할 수 있음
	일부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원의 정도에 따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일부복원은 유적 중 특정 영역에 대한 복원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단일 건축물을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복구하는 수직적 의미인 부분복원과 구별됨 유적의 전체적인 원형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파악되는 부분에 한해 복원을 진행하며 이외의 부분들은 여타의 정비방법을 적용함
	전체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적극적인 복원방법으로 발굴조사 및 학술적 정보와 고증을 통해 의미가 있는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유적이 갖는 역사성, 건축적 특성을 알기 쉬우며 당시의 공간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 제공 복원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본래 유구를 보호조치함으로써 오류 발생 시 본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 또는 전시관 및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됨
보호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유구 보호에서 유적 전체를 보호하는 시설까지 다양함 유구 보호시설에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혹은 문화적 장소로서의 역할 기대 이러한 보호시설은 예기치 않게 유구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원래의 유구를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적의 내용을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보호각이나 보호시설을 통한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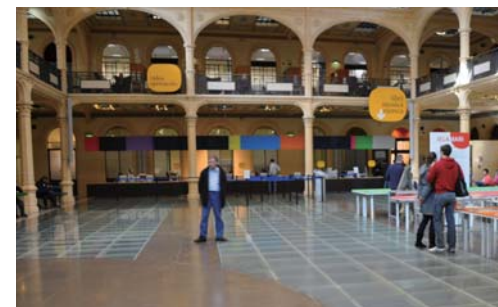
유적이거나 유구를 발굴된 상태 그대로 노출시켜 보존하는 방법으로 기후적 상황에 따라 유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각 등의 보호시설을 통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원형의 유구를 직접 보여준다는 효과가 크다. 다만 보호각이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설계되는가에 따라 활용도에 차이가 있다.

- 유구표시: 평면표시와 입체적 표시

유구의 표시방법은 크게 평면적 표시방법과 입체적 표시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적 표시방법의 경우 건물 등 유구의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성토한 이후 초석들을 원 위치에 위치시키거나 잔디면, 또는 초화류와 같은 식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유구의 전체적인 규모를 쉽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평면적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인 입체적 표시방법은 유적의 볼륨과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이나 기둥과 보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 유구복원: 부분복원과 전체복원, 원위치복원과 이전복원

발굴된 유구의 상태가 원형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거나 사



이탈리아 볼로냐 시청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외부



일본 오사카 부림 협산지 박물관 내부-저수지 제방 전시



이탈리아 베로나

이러한 역사유적은 문화재적 측면에서는 개별 유구나 유적에 대한 보존과 복원이 전제되지만 이를 주제로 한 역사 유적공원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도 조성할 수 있다.

료(문헌 및 도형)에 의하여 원형의 모습이 추정 가능할 때 시행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전체복원을 전제로 하지만 고증의 정도에 따라 일부나 부분을 복원하기도 한다. 문화재는 발굴된 장소에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유구나 유적 전체를 이전하여 복원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

박희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jancha@naver.com

역사문화경관 보존의 국제화, 보편화

역사문화경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경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주제가 되었다. 보존과 관리의 전문가적 기술이 필요한 이 주제 경관은 대체로 전후(戰後)의 도시 복구와 도시의 개발, 그에 따른 경관에 훼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진지하게 출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도시 경쟁력으로 앞세운 문화도시, 혹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도시의 공통된 목표는 실질적으로 역사문화경관에 집중하게 한 배경이 된다.

그러다면, 훼손과 희생의 대가로 시작된 역사문화경관 보존의 문제가 도시경관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일까?

역사문화경관과 관련하여 1962년 이탈리아에서는 의미 있는 국제원칙을 선언하는데, 바로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베니스 헌장(International Charter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이다. 이 헌장은 훗날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¹의 설립의 근거가 될 만큼 국제적인 공감을 얻었으며 기념물과 유적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헌장의 철학은 오늘날의 국제 보존원칙의 전범이 될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다.

베니스 헌장은 유산의 개념과 보존 전반을 다루면서도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통합적 보존방식을 채택한다. 이에 대한 행동강령이 비록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기념물과 유적의 배경이 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러한 태도는 이후 유네스코(UNESCO)와 이코모스에서 제출한 여러 국제 원칙에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하게 거론된다(표 1 참조).

'베니스 헌장' 이후 제출된 주목할 만한 다수의 보존원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관 개념의 확장이다. 기념물

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과 정주환경에 머물렀던 관심은 경관 자체를 유산으로 보는 역사정원의 보존으로 확대되었고(플로렌스 헌장, 1981) 역사도시와 도시지구의 보호와 재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다(워싱턴 헌장, 1987). 또 유산의 범주에 문화경관을 포함시키게 되면서 무형의 문

화유산에 대한 존중과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 역사적 도시경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 2011) 이제 역사문화경관은 세계유산의 한 범주가 되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표 1. 경관보존의 개념 형성에 관련한 국제 원칙의 주요 내용(채태인 외, "‘역사정원’에서 ‘역사도시경관’까지: 문화유산으로서 경관보존개념의 변천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03.)

순번	연도	제목	주안점
1	1962	경관과 유적지의 아름다움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산업과 상업의 발전 속에 경관이 더 이상 황폐화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전체를 대상으로 보존을 권고
2	1964	베니스 헌장: 기념 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복원 국제 헌장	유산의 개념 및 보존 전반에 대해 다른 헌장으로 건축물과 주변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맥락적 보존방식을 체계화함
3	1968	공공·민간 작업에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공공·민간의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에 대한 우려와 알려진 주요 문화재 외의 모든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지의 보호를 장려
4	1972	세계유산 협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파괴 위험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개념을 세계유산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범국제적인 노력을 협약
5	1972	국가 수준에서의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대 건조물과 현 시대의 건조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주변환경과의 전체적 조화가 중요하기에 이를 반영하여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권고
6	1976	역사지역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	건물, 공간요소,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역사지역의 보호에 있어 현대적 생활공간을 과거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역사지역을 보호할 것을 권고
7	1981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	식물과 같이 살아있는 요소를 포함한 역사 기념물에 관한 헌장
8	1987	워싱턴 헌장: 역사도시 및 도시지구의 보존 헌장	도시개발과 산업화 속에서 쇠락하는 역사도시 및 도시지구의 보호와 재건에 관한 헌장
9	1992	운영지침	역사유산의 범주로서 문화적 경관을 정의하고 포함시킴
10	1999	문화관광에 대한 국제헌장: 주요 유적지의 관리	주된 공동체의 생활문화와 유산을 존중하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을 관리하는 여섯 가지의 원칙을 만들
11	2003	무형 문화유산 보호협약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파괴 맥락에서 무형 문화재에 대한 위협 감지,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 사회에 이르는 무형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것을 약속
12	2005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개발로 인해 급변하는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로 역사적 도시경관 보존과 융합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 논의
13	2011	역사적 도시경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안)	역사적 도시경관의 개념을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관적 보존 방식에 대해 논의

¹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는 1965년 세계 각지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무국을 두고 있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 계획가 등 전 세계 각 분야 전문가 9,5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역사적 건물, 역사 도시, 유적지, 문화 환경 등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표준과 기술 기준 등을 제시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문화유산 총회(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총회와 집행위원회, 나라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마다 총회가 열리고 110개국 이상이 국가별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국가별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 헌장을 따라야 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은 상당히 보편적 성격을 요구한다. 한 민족,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으로, 탁월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되어야 한다. 지구 인류를 대상으로 한 유산이므로 지역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시작은 '우리에게는 선조가 남긴 특별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할 의무가 있다'는 진지한 선언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심을 보이는 실질적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총괄디렉터인 기쇼 라오는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중세 유럽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남프랑스 도시 알비(Albi)의 경우, 연평균 방문객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인 2010년에는 7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6만 명으로 10배 늘어났다. 호주 북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산호초 군락인 대보초도 2007년 등재된 후 지금까지 5만여 개의 정규직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호주 여행객 중 94%가 다녀갔다. 17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호주는 전국적으로 12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매년 관광산업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창덕궁, 조선왕릉, 양동·하회마을,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의 세계문화유산은 등재된 이후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 수익과 연결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지역주민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사업이 중앙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지역의 유산을 내세워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추진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대한 열풍에 가까운 국내의 관심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유산을 평가하는 국제적 시각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유산 보존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무형 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Albi, France, 자료: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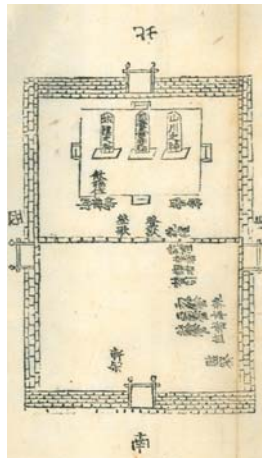
광릉, 경기도 광주, 자료: 문화재청

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과열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선농단,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국조오례의' 권 1 단묘도설



선농단지, 1927년~1935년 조선사편수회 촬영,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처리했던 형식적인 복원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형 고증과 역사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소개하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선농단(先農壇)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상당히 작은 규모에, 남아있는 유구도 거의 없는 지역단위의 역사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발굴부터 고증, 활용계획까지 비교적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선농단 역사공원 계획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선농단은 조선시대 왕이 농사의 신(神)인 선농(先農)에게 예를 올리는 제단으로, 왕비가 양잠의 신인 선잠(先蠶)에게 예를 올리는 선잠단(先蠶壇)과 짝을 이루는 국가 제사처이다.

2. 선농단 훼손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출처, "조선 선농단 훼손과정으로 본 동교의 도시재편 양상," (한토서울, 81호, 2012)을 참고.
3. 지금은 향나무의 동쪽에 제단이 있다.
4. 오늘날의 점입시험장

현재 사적 436호로 지정된 이곳은 상·하단으로 구성된 석조 제단만을 지칭하는데, 제단은 가로, 세로 평균 7.9m의 하단과 그 위에 가로 2.15m, 세로 2.73m의 상단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제단 영역(420m²)과 제단의 서남쪽에 있는 천연기념물 240호로 지정된 향나무 영역(380m²), 제단 북쪽의 놀이터 영역(1,239m²)을 포함한 3,993m²의 필지를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목은 어린이공원이다.

2009년 동대문구청에서는 선농단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아름지기의 후원으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원의 기본계획은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제시했으나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경관 훼손에 대한 심각성, 제단의 변형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예산 확보 과정과 역사공원으로 공원종류변경을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역사공원 조성의 기본 취지를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예컨대, 어린이공원의 역할 보존과 전문가의 조언을 수집하면서 그 내용을 공원 설계지침서에 반영하였다.

한편에서는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시행하여 현재 제단이 원형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선농단의 형식과 위치에 대한 고증 사업이 추가되었다.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² 선농단의 제단은 현존하는 향나무의 남쪽³에 두 개의 낮은 담장이 둘러져 있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경의 경관에는 송림이 있었다. 제단은 1907년 신위가 사적단으로 옮겨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후 이 일대는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⁴ 경성여자사범학교 등으로 이용된다. 제단 주변의 토지 이용이 계속 바뀌고 제단이 방치되면서 송림은 병들어 멸실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경성여자사범학교에 기숙사를 착공하면서부터다.

기숙사 건설은 제단의 완전훼손을 불가피하게 했지만, 사범학교 교장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의 제안으로 담장은 철거하더라도 제단은 위치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제단의 완전한 변형과 훼손은 놀담게도 일본에 의해서가 아닌 1970년대 중반 대한주택공사



선농단 역사공원 현상설계 당선안
우리인등건축사사무소대표 노윤경/안스디디자인(대표 안영애),
자료: 동대문구청

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에서로 밝혀졌다.

역사적 고증 사업이 끝난 2011년 5월경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신청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선농단이 조성되고 그것이 왜곡되어 훼손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에서 대한제국기, 그리고 식민지기를 거쳐 서울이라는 현대 도시가 건설되면서 나타나는 역사적 상징체계의 붕괴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비단 역사공원 설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농단역사공원의 문화 콘텐츠를 풍부하게 한다. 가령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선농단 제단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사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함께 조사한 선농단의 역사 덕분에 선농단의 원형적 규모와 조선시대의 의미를 알고 상세한 선농단 일대의 땅의 기록을 알게 되어 오히려 선농단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이다.

도시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 그 근원을 아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본래의 모습을 가질 수 없고 과거의 형태와 가치가 온전히 복원되거나 보존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이해는 동시대의 요구와 미래의 안목을 반영한 공간으로 충분히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농단과 같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원형의 보존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석하고 경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역사문화경관의 개념이 진화하고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순종 2년(1909)의 친경식, 이와타 데이 촬영, 자료: 한미사진미술관
이 시기에는 이미 신위를 사직에 옮겨갔으므로 조선시대의 제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과거 제례형식을 따랐고 동쪽 구름에 식목행사를 추가로 거행한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선농단 앞에 설치된 친경대(관경대), 이와타 데이 촬영(1909), 자료: 한미사진미술관

인용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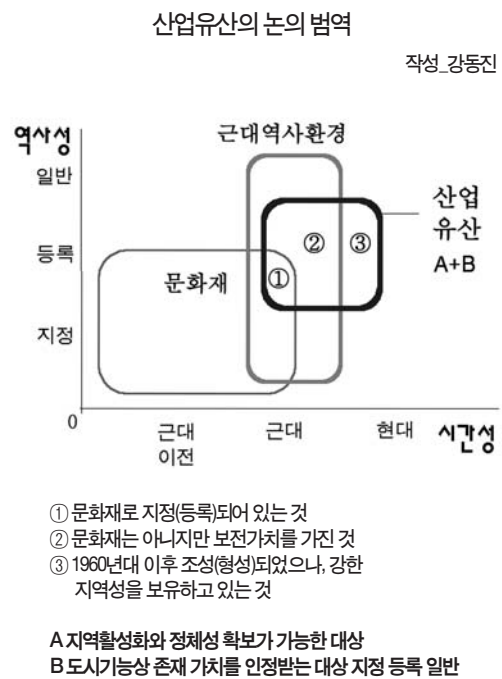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과 연계하면 세계문화유산 가치 더욱 커질 것" 서울신문, 2012년 8월 28일.
- 박희성, "조선 선농단의 훼손과정으로 본 동교의 도시재편 양상," 郷土서울, 81호, 2012.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농단 역사공원 기본계획," 동대문구·(재)아름지기, 2009.
- 서울학연구소, 『선농단의 위치 및 형식을 고증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동대문구, 2011.
- 채혜인·박소현, "'역사정원'에서 '역사도시경관'까지: 문화유산으로서 경관보존개념의 변천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재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분석』, 문화재청, 2009.

홋카이도에서 만난 산업유산의 풍경과 그 지향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conkang@ks.ac.kr

산업유산은 지금도 살아있다.

‘산업産業’과 ‘유산遺産’이라는 말은 사실 전혀 관계없는 말이다. ‘산업’은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말이고, ‘유산’은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는 문화재를 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뜻만 놓고 보면 분명 상극이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 때만이 가치가 생겨나고, 또 다른 하나는 옛것에 매달려야 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유산 논의를 촉발시킨 당인리 발전소

땀 흘리며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자 근거였고, 그곳에서 작동했던 산업(시설)으로 인해 오늘날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산업유산은 나와 관계없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삶의 진정성이 강하게 스며있는 일종의 생활유산'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나간 과거 산업의 부산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재생의 새로운 장치로 바라보는 시각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유산이 가진 독특하고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다.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 시범사업의 대상들

그렇다고 폐허가 된 모든 산업시설들이 저절로 산업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거나, 산업시설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공간·경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뿐 아니다. 타 용도로 쉽게 대체하거나 해체되면 안된다는 '지역(민) 차원에서의 목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이처럼 산업유산으로 인정받는 일은 제법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인정 과정을 통과만 한다면 산업유산은 여러 모습의 '변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변신은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되며, 제대로 된 재활용을 통해 산업유산은 온 자체는 물론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생 에너지의 공급체로 거듭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했던 '산업' (주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과 연관된 상황들이 다각도로 변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내뿜던 산업현장들은 제3세계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첨단산업이라는 이름하에 타 기능으로 바뀌거나 하루아침에 엉뚱한 기능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관심으로 산업유산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200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5개소에 대한 국가시범사업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들은 산업유산 재활용의 기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채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통 '관광'에 기댄다. 관광은 유연히, 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산업유산을 재활용한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쉽게 지치게 하고, 실패는 자명한 것이다.



홋카이도의 농업과 낙농업, 그리고 양조(맥주)산업은 바로 이같이 펼쳐진 벌판에서 시작된다(비에이,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경관자산으로 활용 중인 마슈마루



가나모리창고는 문화, 상업시설로 활용 중이다

시작할 때의 뜻은 좋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산업유산 재활용이 가진 진정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첫째 이유이고, 주민참여를 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향적으로 또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이 둘째 이유다. 마지막은 산업유산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즉, 지역재생의 장치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유산에 내재된 잠재력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산업유산은 '살아있는 생활유산'이다. 화석화된 변화가 중지된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연관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움직이는 '진행형 유산'이다. 그래서 산업유산은 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신개념의 지역유산'이다. 또 과거보다 미래의 역할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진정한 '미래 유산'이다.

이러한 산업유산에 대한 정의에 가장 근접한 사례를 꼽는다면 화력발전소, 제철소, 항구, 탄광시설, 공장 등을 재활용 중인 영국과 독일의 산업유산들이 1순위 후보들이다. 그러나 단위시설(공간)의 규모나 문화·경제 차원에서의 파위는 떨어지지만, 지역과 연관된 산업유산의 유형이 다양하게 남아있고 이의 가치 구현을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을 꼽으려면 필자는 단연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를 선택한다. 물론 이들이 하고 있는 산업유산에 대한 접근이 100점도 아니고 또 정답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산업유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노라면 "아! 산업유산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다루어야 하겠구나" 하며 고개가 끄덕여진다(물론 필자만의 시각일 수 있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통해 '산업유산 가꾸기'에 있어 반드시 요청되어야 하는 몇 가지의 이념적인 원칙들을 짚어 본다.

'홋카이도유산' 과 그들의 지역사랑

'홋카이도'. 북해도(北海道)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다. 타 일본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출고 눈이 많은 지역이고, 원래 아이누족이 살고 있던 미개척지였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개발이 시작되었다. 홋카이도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와 같은 곳이다. 평시에 쉽게 찾는 곳이라기 보다는 특별히 시간을 내 방문하는 특별한 곳이다. 일본사람들은 홋카이도의 맑고 청명한 공기와 하늘, 신선한 유제품과 생선, 그리고 넓고 푸른 숲과 벌판을 좋아한다. 특히 홋카이도의 젓소와 고기소의 수량은 전국 45% 이상을 점유하며 생산량의 80% 이상을 유제품으로 가공해 전국에 공급한다. 홋카이도의 바다는 한때 세계적인 어장이었고, 홋카이도의 곳곳 도시들(미카사, 유바리, 비바이 등)의 석탄 생산량은 일본 최고였다. 홋카이도는 이러한 지역 자원과 관계된 수산업, 농업과 목축업, 광업이 근대 이후 크게 발달하였고, 이를 가공하는 제조업(수산물, 낙농제품, 농산물, 목제품, 펄프, 맥주 등)과 저장과 반송을 위한 물류운송업이 크게 발달한 곳이다.

지난 2001년부터 홋카이도만이 가진 특별하고도 고유한 자연, 산업, 문화와 관련된 것들(52개소)을 '홋카이도유산(北海道遺産)'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시작했다. 홋카이도의 산업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폐광산의 기계들', '노면전차', '방파제', '갈', '포대', '꽃밭', '다리', '호수와 숲', '축제', '온천', '인공수로', '지형', 심지어 '양고기요리'와 '라면'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점은 관리를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인 'NPO法人北海道遺産協議會'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보

니 딱딱한 문화제적인 시각보다는 홋카이도유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알릴까' 또 '어떻게 활용할까'가 그들의 관심사다.

필자가 흥미로워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홋카이도유산의 50% 이상이 산업유산이기 때문이다. 주로 저장시설(창고), 생산시설(공장), 광산시설(기계류, 설비시설), 항만시설(방파제, 인공수로, 운하, 선박류), 그리고 교통시설(노면전차, 폐선부지 등)이 해당한다. 대부분 19세기 말에 서부터 196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역사서를 찾아보니 하코다테(函館)가 본격적인 홋카이도의 출발점이다. 양풍과 화풍이 적당히 섞여 있는 하코다테는 16세기부터 러시아와 교류 거점이었고, 1854년에 미국에 의해 개항되었고, 요코하마나 고베보다 실제 개항의 시점이 빨랐다.

하코다테의 앞바다(쓰가루해협)를 건너면 바로 일본의 본토(혼슈/本州)이고, 아오모리(靑森)라는 사파로 유명한 항구가 있다. 하코다테와 아오모리 사이를 '세이칸연락선'이라는 13척의 배들이 1908년부터 1988년까지 80여 년 동안 홋카이도의 석탄, 목재, 농산물을 혼슈로 실어 나르고, 혼슈에서는 노동자들(노동자의 상당수가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선조들이었고, 이에 대한 아픈 논의와 설명은 생략한다.)을 실어 날랐다.

세이칸연락선 두 대(하코타마루(八甲田丸, 5,382톤)와 마슈마루(摩周丸, 5,374톤))가 아오모리와 하코다테 항구에 각각 정박해 있다. 이들은 왜 배들을 버리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 1988년 바닷길이 끊긴 후 쓸모없어진 배들을 보존하지는 시민운동이 계기가 되었고, 홋카이도 산업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선박들을 지역의 소중한 산업유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동해와 연결된 하코다테는 예부터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 하코다테에는 오징어를 보관하던 창고들이 많았는데 남아있는 창고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가나모리창고(金森倉庫)'다. 이 창고는 버려진 낡은 창고를 재활용하여 지역 재생을 도모한 일본 최초의 사례다. 30여 년 전에 일본 창고 재활용의 역사가 하코다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타루의 산업유산들, 문화관광의 핵심이자 도시재생의 필수품들이다.



여름밤, 오타루운하와 창고들이 만드는 풍경



30년이 다 되도록 테미야페션은 변치 않고 오타루를 지키고 있다

홋카이도에는 일본 어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또 다른 항구가 있다. 오타루(小樽)다. 오타루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부흥했던 '청어(靑魚)의 도시'이고 홋카이도의 석탄을 혼슈로 실어 나르던 '석탄 무역항'으로 알려졌다. 오타루는 북해도 개척시대에 내륙도시 삿포로의 외항 역할을 담당했고, 1907년에 홋카이도 최초로 철도(테미야선, 手宮線)가 개설되면서 홋카이도의 관문도시이자, 홋카이도의 각종 해산물과 농산물이 집중되는 물류도시로써 한때 '홋카이도의 웨스트리트'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온갖 영화를 누렸던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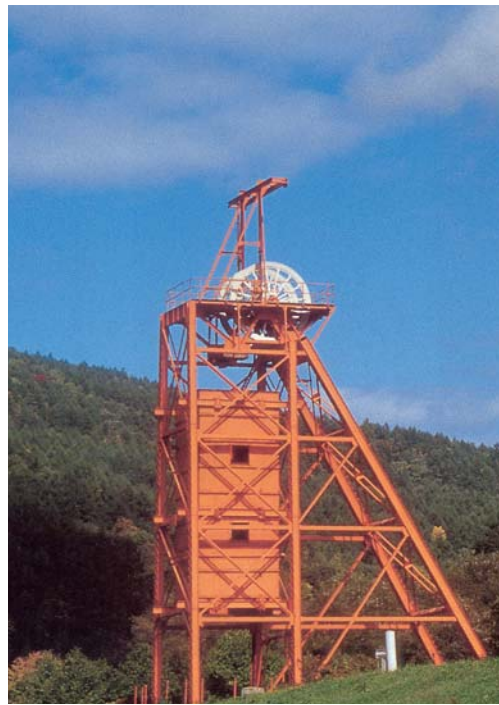
그러나 보니 오타루에는 다양한 산업유산들이 남아있다. '60여 동의 청어 창고들', '배들이 물건을 부리던 오타루 운하(小樽運河)', '테미야철도와 관련된 폐철도와 철도시설들', '석탄하적용 고가잔교(高架石炭棧橋)', '북방파제(北防波堤)', 그리고 '각종 근대기의 석조로 된 은행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오타루의 풍경은 마치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지거나 옛 항구의 풍경이 그리워질 때면 오타루를 찾는다 한다. 그 수가 자그마치 1년에 천만이 넘는다. 오타루의 예로 보면 산업유산만으로도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콘크리트와 쇠, 그리고 나무로 된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산업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오타루의 풍경을 왜 사람들은 좋아할까?

오타루에 모여 혼슈로 출발했던 석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홋카이도가 없었다면 폐망 후 일본의 번영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홋카이도의 석탄은 1950-60년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바이(美瑛), 유바리(夕張), 미카사(三笠), 호로나이(幌内) 등에는 수십 개소의 석탄광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폐광지역을 테마파크로 바꾸었다 실패한 곳도 있고, 조각 공원이나 주민체험시설로 바꾼 폐광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내버려 두고 관찰만 하는 곳도 있다. 우리의 문경, 태백, 정선이 그러하듯 이들 지역도 눈물겨운 소생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홋카이도의 맑고 푸름의 이면에 숨어있는 시대의 아픔이자 고통의 공간인 셈이다.

사실 홋카이도의 산업사를 얘기하면서 삿포로(札幌)를 빼는 것은 큰 실례다. 눈 내리는 겨울이 되면 삿포로는 일본을 넘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 돌변한다. 1972년에 열렸던 삿포로동계올림픽은 삿포로 대변신의 출발점이었다. 북방개척시대의 전진기지가자 풍부한 농산물의 공급지대로만 인식되던 삿포로가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오타루에서는 방파제도 유산이 된다.



홋카이도유산인 비바이의 입식갱도시설

것이다. 이를 위한 삿포로의 개조(再造)는 엉뚱하게 '그들만의 역사 지키기'에서 시작되었다. 북방개척 시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옛 홋카이도 도청을 출발점으로 하는 '역사적인 도심축을 되찾는 일'이었다. 1990년대 들어 이 도심축에 대한 시선은 더욱 강화된다. 도심축에 붙어 있는 1876년에 건설된 '삿포로 맥주 제1제조소'와 1890년에 건설된 '삿포로 제당공장' (1905년에 삿포로 맥주제조소로 전환)의 재활용은 홋카이도 북방개척사의 현대적 해석에 방점을 찍었다. 아마 '삿포로 = 맥주도시'라는 애칭이 본격화된 것은 이때 즈음일 것이다.

산업유산이 되려면 살아있어야 한다.

죽어있는 홋카이도에서 발견되는 산업유산 가꾸기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는 산업이 작동했던 원래의 작동 시스템을 최대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시설은 물론 그 작동과정에 함께 남겨질 때 산업유산의 가치가 크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업유산 재활용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지식과 부족한 재원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홋카이도에서는 광산관련 시설과 폐철도에서 이러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셋째는 산업의 스토리와 기계류, 설비류, 소품들도 보존과 재활용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건축물 위주의 껍질만을 남기거나 보존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산업유산의 핵심은 기계와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축물 보존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은 시민(지역민, 연고기업)의 참여와 공감인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지역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참여그룹의 존재 유무에 따라 산업유산 가꾸기의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홋카이도의 다양한 산업유산들



홋카이도 농, 낙농업 발전의 출발점이었던 홋카이도농업학교 제2농장이 홋카이도대학에 보존되어 교육현장으로 활용 중이다.

선유도공원, 인천아트플랫폼, 서서울호수공원, 2012여수 엑스포의 스카이다워. 산업유산을 성공적으로 재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 중이 기획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여럿 있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분명 산업유산 재활용의 '촉발기'다. 따라서 산업유산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폐산업시설(아직 움직이는 노후 산업시설 포함)들을 찾아 상세한 목록을 만들고, 이를 산업유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 다짐과 동시에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성급한 재활용을 통한 성과 만들기는 지양해야 한다. 200%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산업유산은 일단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활용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판단이 설 때까지 그냥 두거나, 안전장치 후 최소한의 이용만을 해야 한다. 이때 확보되는 시간은 해당 산업유산에 대한 성숙한 판단, 산업유산에 대한 지역민 스스로의 가치 인정, 그리고 자생적인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라는 스스로의 주장을 통해 우리 산업유산들을 현세대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전해야 한다는 이념화의 계기를 형성시켜 줄 것이다.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 mhp@uos.ac.kr

역사경관을 창출하는 도시 교토

약 천 년간 일본의 도읍이었던 교토시에는 일본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이 남아있으며, 시 전역에 걸쳐 고쇼(御所), 니조쥬(二條城) 등의 14개 사적지가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교토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전·재생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격(格)과 매력의 향상이라는 부가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거주자와 거류인구의 증가, 훌륭한 인재를 집적, 지역고유의 산업·관광·지식산업 등의 투자증대로 이어져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문화유산을 보전·재생하는 시책은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기 시민참여와 역사경관을 보전하려는 일련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시민들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과 세계가 참여하여 개발과 보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보존대상 사적지구를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주민 지지를 80%)하게 되었다. 기온축제 등 3대 축제 시에는 지역의 시민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통가옥인 교마치야(京町屋) 센스스는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행하였고,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마치야 상점협회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힘을 합치고 있다. 교토사적지구 내 전통가옥인 교마치야를 역사와 전통이 담긴 공공유산으로 인식하여 마치야의 보전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일터와 거주공간의 복합공간으로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교토시는 1930년 풍치지구의 지정(3,400ha→현재 17,938ha)을 시작으로 1966년 「고도보전법」에 의한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를 지정(117ha→현재 2,816ha)하였으며, 1972년에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가지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미관지구, 거대공작물 규제지역, 특별보전수경지구 등 지정하여 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고도규제가 시행되었다. 2007년에 시행된 신경관정책은 도심부에 대한 기존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건물디자인 규제, 조망경관과 차경(借景), 옥외광고물, 역사적 거리의 재생과 지원체계 등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38개 조망명소와 차경의 보존은 「조망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유산과 그 주변지역의 경관적 특성



교토 조망경관보전지역지정개요도



마치야 주변 건축규제 예시도



역사유산형 미관지구의 정비 이미지

을 동시에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단체(空堀具樂部)가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오사카시의 카라호리(空堀)지구는 도심인 중앙구에 위치한 지역(36ha)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축조한 오사카성 남쪽의 바깥쪽 해자에 해당한다. 전쟁 당시 피폭을 당하지 않아 오래된 전통적인 서민주거양식(長屋)과 상가, 돌계단, 골목길 등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지구는 오사카시가 노후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프존 사업(HOPE Zone Project, 2004년~2013년) 대상지 중 하나이다. 카라호리지구는 지정된 지역 6년으로 지역의 상인단체와 대학교, 지역단체가 주도적으로 전통적인 주거 양식을 보존하며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대학교 등 전문가가 주거양식 등

지역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단체(카라호리클럽:空堀具樂部)는 카라호리 상점가 주변의 장점을 활성화 시켜 살기 좋고 매력있는 거리의 창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리의 보존·재생, 상점가 주변의 매력 중 하나인 "교류"하는 생생한 활력이 있는 마을만들기, 신·구세대 문화의 공생, 나가야 스텝은행네트워크 기업조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가야 스텝은행네트워크 기업조합은 마을만들기의 시점에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노후화된 위험한 빈집을 수리하고 이 나가야를 카라호리클럽에서 임대하여 기업들의 상업장소로 대어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카라호리클럽은 호(萌)·렌(練)·소(惣)의 3개로 나누어져 있다. 호(萌)는 복합문화시설로 나오키상(賞)으로 유명한 나오키 산주교가 다녔던 소학교를 재생하여 나오키 산주교 기념관 및 여러 상점을 운영해 재생 복합문화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렌(練)은 저택재생복합 샵으로 다이쇼 말기



나가야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카라호리지구/저택재생복합 샵 렌(練)의 전경

에 고베로부터 이전된 건물을 6년의 세월에 걸쳐 복원하여 복합시설로 재생하였다. 소(惣)는 나가야 재생복합 샵으로 메이저시대에 지어진 나가야를 재생해 만든 상점으로 노후화되어 주차장이 되어가던 지역을 임대하여 복합시설로 재생한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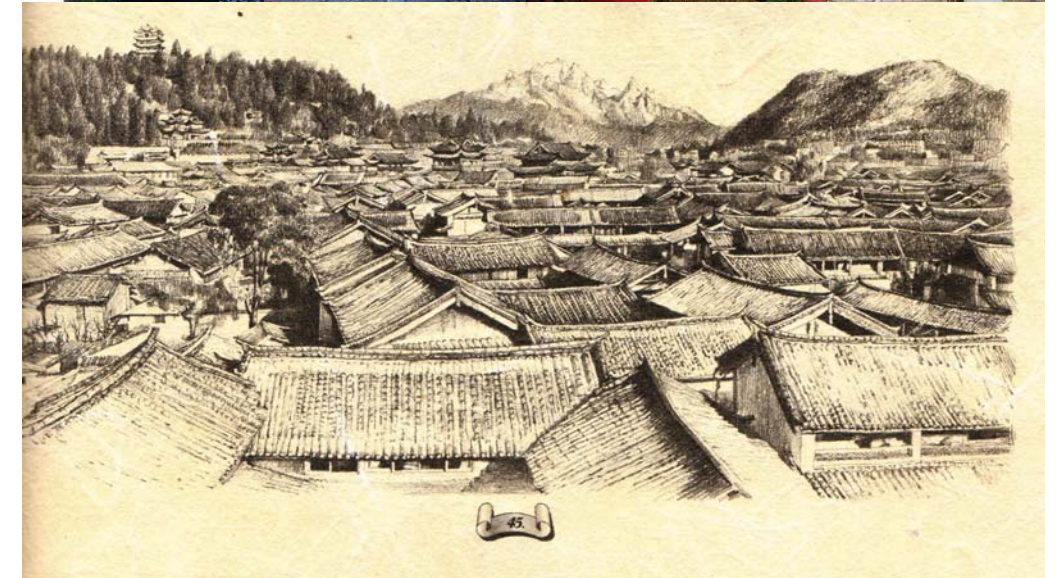
옛 도시의 모습, 그대로 리장고성(麗江古城)

리장은 양쯔강의 발원지로 중국 10대 명승풍경지역으로 선정된 옥룡설산(玉龍雪山)과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장고성이 위치하여 '우수거주환경도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관광도시', '국가관광명암' 등의 칭호를 받고 있다.

옥룡설산 밑 해발 2,400m에 위치한 리장고성은 8세기경 이곳으로 이주한 나시족(納西族)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한족과 소수민족의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으면서도 고유의 전통과 생활방식이 잘 보존되어 독특한 민족문화와 건축물을 지니고 있다. 고성 내에는 송(宋)나라 말에서 원(元)나라 초에 축조된 나무와 흙, 기와로 엮어진 나시족 고유의 건축물, 돌바닥 골목길 등 옛 시가지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성 내의 민가는 명·청대 남부 지방의 강남수향(江南水鄉)의 정취와 더불어 당·송대의 유풍의 건축양식도 잘 녹아있어 중국의 건축·문화·도시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고성에 흐르는 세 지류는 식수, 밥솥, 빨래물로 나뉘어 쓰고 있으며, 각 마을의 집에 물을 공급하기



리장고성 전경



역사 · 문화적 기억과 새로움

최정민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jmchoi117@empal.com



관제탑, 활주로, 격납고 등 군사시설은 현존하는 기념품으로 레스토랑, 전시장, 교육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정민



아스팔트 활주로의 가운데 부분은 남기고 가장 자리는 파쇄하여 무수한 틈을 만들고 있다. ©최정민



들판에 떠 다니는 얼음 덩어리 같은 깨진 콘크리트 판 틈 사이에는 식물이 자라나고 있다. 독일 남만파 화가 카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히의 '얼음바다(Eismeer)'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최정민



독일 남만파 화가 카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히(Caspe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얼음바다(Eismeer, 1823-25) (http://zess.egloos.com/photo/album/47982/959835)

역사와 문화는 연속성이라는 껍데기를 가진다. 연속성은 지역의 자연적 · 생태적 과정과 역사적 · 문화적 기억 같은 시간적 누적 과정이 내포된 개념이다. 지역의 연속성은 설계자가 기억을 불러내어 현재화하거나 미래화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기억'이 된다. 문화적 기억은 강력한 설계 기준이나 준거라기보다는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해석을 적절히 제어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이 된다. 역사 · 문화적 기억은 설계의 '밀그림' 역할을 하며, 설계자의 경험과 실천에 대한 준거로 작용한다. 그것은 현대조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있는 설계를 제안했다. 그들의 안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수용하면서도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고 자연 천이를 유도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아스팔트 활주로나 콘크리트 포장층은 식물 모자이크로 다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의 녹색 공간으로 변모했다. 반환된 기지의 포장면 가운데 약 30,000㎡는 포장을 파쇄하거나 제거하고, 15,000㎡는 현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쇄하거나 제거된 포장 면은 대부분 생태적 과정에 따른 자연 천이를 유도하고 있고, 일부는 초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식물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거나 바뀌는 중이다. 모리스 로즈 비행장이 변모한 Alter Flugplatz는 기본적으로

남겨진 군사시설과 대상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건물과 활주로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지의 과거는 현존하는 기념품이 되고 있다. 기존 시설물들은 과거 용도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현대적인 활동을 담아 새로운 경관을 만들고 있다. 대상지를 양피지(palimpsest)로 읽고 지역적 가치를 재해석하여 끊임없이 '차이'를 만드는 동시대 조경의 경향이기도 하다. 대상지의 남겨진 과거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활주로, 주기장 등 군사적 시설의 기능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유물이 미술 작품은 아니지만 회화적 요소로 전환하고 있다. 파쇄된 콘크리트 슬래브들은 지진으로 지반이 움직이고 침하한 모습 같기도 하고, 기울어져 겹쳐있는 모습이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며, 들판에 떠있는 얼음덩어리 같기도 하다. 이는 독일의 남만파 화가 카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리히(Casper David Friedrich)의 '얼음바다(Eismeer)'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¹⁾. 거의 모든 기억은 체험과 관련된다. 자연에 대한 경의와 관찰, 명상을 통해 발견한 정신적인 경험을 그림으로써 전달하고자 했던 프리드리히의 회화는 설계자들의 체험한 문화적 기억이다. 문화적 기억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창조적인 행위의 자양분이다. 문화적 기억은 지역의 역사 · 문화와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새로움'을 만드는 데 '밀그림' 역할을 한다.

군사유적에서 새로운 기회로, Alter Flugplatz

프랑크푸르트 북쪽 Nidda 강변 Bonames 인근은 사람들에게 비행장과 소음으로 기억되던 곳이다. 2차 대전 이전부터 비행장은 사용되던 이곳은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모리스 로즈 에어필드(Maurice Rose Airfield)로 불리던 미군 헬리콥터 기지였다. 지금의 모리스 로즈 비행장에는 헬리콥터가 날고 있지는 않지만 군사 시설로서의 과거는 남아 있다.

1992년 미군 기지가 독일에 반환되자 프랑크푸르트 시장부와 시민들은 활주로를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반면에 환경 단체들은 오염을 제거하여 미군 기지로 사용되기 이전의 녹지대로 되돌리고자 했다. 설계자(GIT)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수궁할 수



프랑크푸르트 도심은 기억과 새로움이 공존하여 또 다른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정민

1. Stefan Leppert 2005, Gnuchtel · Triebwetter-Old Niddawiesen Airfield in BDLA eds, Spielraume Changing Places, Birkhäuser.



엘쯔반(Erzbahn) 안내도. 오른쪽 아래 보훔 바로 위 빛금진 부분이 'West park'이다. ©최정민



9km 이상 계속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산책길 ©최정민



엘쯔반과 West Park를 연결하는 새로 설계된 보행교는 주변 산업 경관과 우아하게 대비된다. ©최정민

폐선에서 멈추지 않는 길로, Erzbahn

엘쯔반(Erzbahn)은 그림베르그 항구와 보훔(Bochum) 시내 가까이 있는 인넨스타트-베스트사이 구간으로 약 9km이다. 1913년에 이미 완성되어 항구와 제철소 간의 철광석 운송을 담당했다. 1960년대 제철소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폐선 되었다. 이 길에는 철광석 수송 열차 대신 자전거가 교차로 없이 멈추지 않고 9km 이상 계속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산책길이 되었다. 주변지역보다 15m까지 높은 폐선 부지는 주변지역과 산업경관을 둘러보면서 오늘이 있게 한 과거를 기억한다. 자전거와 보행자들은 엘쯔반 푸른 길을 따라 15개의 다리를 통과하게 된다. 기존 교량은 산업 문화를 기억하게 하는 유산이다. 끊어진 부분은 새롭게 설계된 다리가 놓였다. 기차는 멈추었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 유적이 문화적 거점으로, West Park Bochum

West Park는 Bochum 서쪽 인넨스타트-베스트(Innenstadt-West)에 위치하고 있다. West Park는 철강 공장 이전지로 이곳은 이전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곳이다. 구 산업 시대가 남긴 구조물과 오염된 토양이 문화적 거점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 특히, 공원의 중심부에는 백주년 홀(Hall of the

century)은 살아 있는 산업 기념비이자 문화적 거점이 되고 있다. 이 홀은 1902년 철 제품 전시를 위해 지어졌지만, 2003년 전시 및 콘서트 홀로 리노베이션하여 Ruhr Triennale를 개최하고 있다. 공원은 3레벨의 지형으로 되어있다. 각 레벨에서 단차는 각기 개성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해결하고, 보행교와 경사로를 통해 제일 높은 레벨에 다다른다. 각 레벨을 연결하는 것은 3개의 보행 브릿지이다. 이 브릿지는 지명 공모를 통해 설계되었다. 보행 브릿지는 철강 공장의 거칠고 견고한 형상과 우아하게 대비된다. 공원의 모든 길은 제일 높은 레벨에서 만난다. 공원의 제일 높은 레벨은 공원과 남겨진 산업 유적, 도시가 한눈에 조망된다. 이 레벨에서 공원은 녹색 길 '엘쯔반'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이렇게 West park와 도시는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West Park는 뒤스브르크 노드 공원(Landschaftspark

Duisburg-Nord)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의 유사하다. 뒤스브르크 노드 공원이 구조물의 비중이 높고 공원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West Park는 구조물과 녹색 공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공원 방문자는 뒤스브르크 노드 공원에서처럼 거대한 산업 유적에 압도되지 않는다. 뒤스브르크 노드 공원이 형태적 디자인보다는 생태적 접근을 우선 고려했다면, West Park는 형태적 디자인과 생태적인 것이 절묘하고 공존하면서 인공적이지만 절제된 형태미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산업 유적 공원화의 앞선 선례인 뒤스브르크 노드 공원의 경험은 이미 동시대의 설계자들에게 '문화적 기억'이 되고 있다. 그러나 West Park의 설계자들은 기억을 현재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도를 통해 기억을 만들고 있다. 모든 기억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경험은 새로운 시도도 체험되기 때문이다.



수송철로로 사용되었던 거더(girder)교는 산업 문화를 기억하게 하는 유산이다. ©최정민



공원 쪽에서 바라 본 백주년 홀(Hall of the century), 산업 유적이 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방문객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최정민



공원은 서로 다른 레벨에서 산업 유산인 건축물과 공원, 인공과 자연, 기술과 생태가 호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최정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2년 10월 15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17호의 주제는 '여가관광'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조경학회나 리펀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lafent.com

기간 2012년 10월 5일까지
보내실 곳 kila96@chol.com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발행인 | 양홍모(사)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 | 성종성(서울대)
책임편집위원 | 박문호(서울시립대), 최정민(순천대)
편집위원 | 권진욱(영남대), 김이연(서울시립대), 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 loci)
윤상준(제이름지기), 이유미(서울대)
간사 | 유은자 백정희
2012년 9월 10일 발행 |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



자연과 동거를 꿈꾸는 디자인그룹



(주)그릅한 어소시에이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4-4번지
그릅한빌딩 7, 8F, B1(우137-060)
T_02-521-1122 F_02-521-9858
E-mail_groupphan@grouphan.com
Homepage_www.grouphan.com

